

11월 04일 로이터 뉴스레터

▶ 달러/원 주간 전망

• 어디로 튈지 예단 어려운 환율..1400원대 시대 열릴까

서울, 10월4일 (로이터) 박예나 기자 -

이번 주는 국내외 금융시장을 뒤흔들 미국 대선과 연방준비제도(연준) 정책회의가 예정된 만큼 달러/원 환율은 큰 변동성 장세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 주간 환율 범위는 1345-1410원이다.

미국 대선 판세가 초박빙인 점을 감안할 때 누가 당선되더라도 시장이 요동칠 것이라는 전망이 압도적이다. 다만, 그간 금융시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확률을 높이면서 소위 '트럼프 트레이드'를 구축해온 터라 트럼프보다는 해리스 당선에 따른 시장 반작용이 더 클 것이라는 해석이 곁들여진다.

다만, 공화당이 대통령과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국제 금융시장이 더 요동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미국 대선 이후에도 정치적 불확실성이 말끔히 해소되지 못할 경우 국내외 금융시장은 갈지자 행보를 보일 수도 있다. 결국 어디로 튈 지 모르는 변동성 장세를 각오해야하는 한 주다.

선거를 앞두고 미국 국채금리와 달러는 일방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이에 달러/원 환율 역시 1300원선에서 1400원 근처로 매섭게 올랐다.

자체적인 원화 강제 재료가 부재한 상황에서 원화는 달러를 더 민감하게 쫓아다녔다. 대외 불확실성에 달러를 보유하고자 하는 심리는 더 강했고, 이에 더해 외국인들은 국내 증시를 떠나며 달러 수요를 더 부추겼다.

대선이라는 큰 이벤트를 소화하면서 그간 쌓여있던 포지션에 대한 차익실현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가 있지만, 리스크 오프 심리가 더욱 심화되는 쪽으로 국제 금융시장 분위기가 형성된다면 달러/원은 1400원 대로 레벨을 훌쩍 높일 수도 있다. 이 과정에서 당국은 시장 변동성을 관리할 수 있겠지만, 대외 여건 전개 상황 따라 오히려 환율 상승의 길을 열어주는 선택을 할 수도 있다.

대선 이후에는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정책회의가 대기하고 있다. 대선 결과가 촉발할 수 있는 시장 불안과 경제 파장에 대한 연준의 반응이 있을 수 있겠지만, 탄탄한 미국 경제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더딘 금리인하 경로를 재차 확인시킬 경우 달러와 금리는 더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

영국과 호주 중앙은행의 정책회의가 있고, 중국 정부는 전인대 상무위원회를 열고 재정정책을 승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중국 물가와 수출지표도 발표된다. 국내 주목할 경제지표로는 10월 외환보유액과 소비자물가 및 9월 국제수지(잠정) 등이 나올 예정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금주 핵심은 대선이다. 러시아에 대한 북한 파병, 중동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도 미 대선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 금융시장을 결정할 격랑의 주를 보내며 원화의 변동성이 얼마나 확대될지 주목된다.

▶ 주간 세계 이슈

미국 유권자들은 오는 화요일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와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가 맞붙는 초박빙의 선거에서 차기 대통령을 뽑는다.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의 수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금융시장, 중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무역, 그리고 다음 주에 예정된 연방준비제도(연준)와 영국, 호주, 브라질의 금리 결정 회의를 비롯한 통화 정책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美 대선 불확실성

이미 자산 가격을 흔들었던 미국 대선 사이클이 드디어 막을 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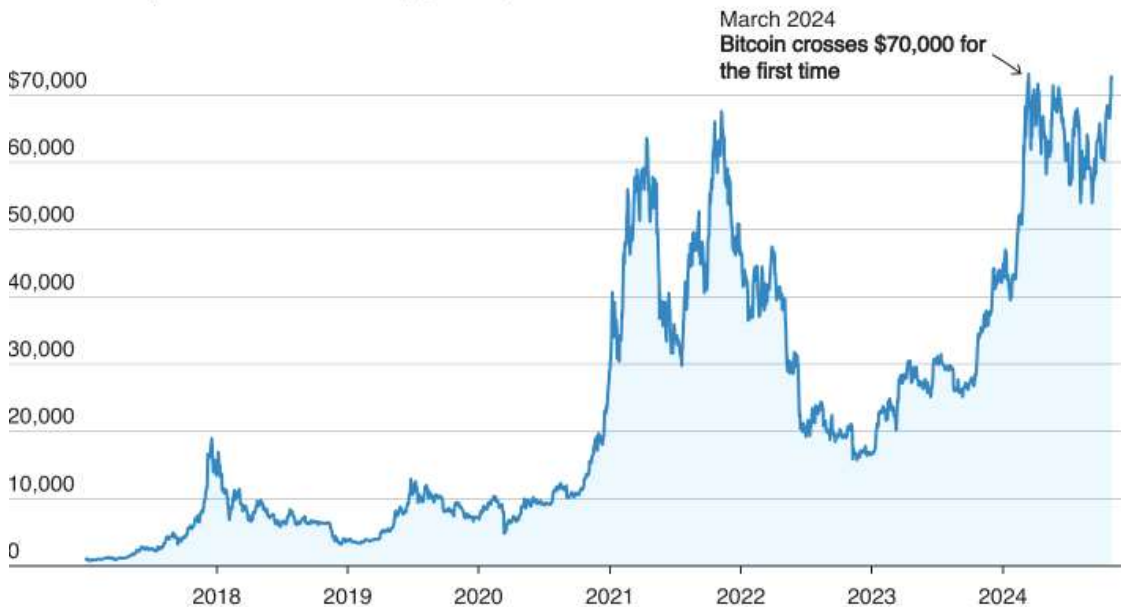
최근 미국 국채 수익률과 달러가 상승하자 일부 트레이더는 트럼프의 승리를 기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여론 조사에 따르면 해리스와 매우 박빙의 승부가 예상되고 있어 민주당이 승리할 경우에는 급격한 언와이딩이 있을 수 있다.

투자자들은 선거 경합 가능성과 정부 구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시장의 큰 리스크로 작용할 것을 우려하며 명확한 결과가 나오길 바라고 있다.

한편, 트럼프 거래의 극단인 비트코인은 다시 사상 최고치에 근접하고 있다.

Bitcoin Trump Trade

Bitcoin has climbed in recent weeks as polls show a tight race between Republican candidate Donald Trump and his Democratic opponent, Vice President Kamala Harris.



Note: Data through Oct. 30, 2024

Source: LSEG Datastream | Reuters, Oct. 31, 2024 | By Kripa Jayaram

⊙ 연준 정책회의

미국 대선 다음 날, 연준은 금리 회의를 시작한다. 통화정책에 있어 문제는 차기 미국 대통령에 따른 결정이 성장과 인플레이션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부다.

일부 투자자들은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강세를 보이자 연준이 9월 50bp 큰 폭의 금리 인하로 현재의 완화 사이클을 시작한데 대해 이를 잘못 계산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25bp 인하가 예상된다.

투자자들은 연준의 성명서와 제롬 파월 의장의 기자 회견에서 정책 입안자들이 경제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믿는지, 그 결과 예상보다 금리를 덜 인하할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연준의 정책금리와 연계된 선물은 투자자들이 연말까지 약 120bp의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中 수출 및 물가지표

중국은 목요일 10월 무역 수치를 발표하는데, 투자자들은 백악관을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 중국 수출 호조를 기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중국에 6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트럼프의 위협은 연간 4천억 달러 이상의 상품을 미국에 판매하는 중국의 산업을 뒤흔들고 있다.

수출 모멘텀이 중국 경제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상황에서 트럼프의 승리는 엄청난 파급력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11월9일에 발표되는 10월 인플레이션 데이터는 중국 당국이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기 위해 9월 부양책을 발표한 이후 처음으로 발표되는 수치다. 이를 통해 중국 소비자들이 긴급한 경기 부양책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조기에 파악할 수 있다.

⊙ 호주·영란은행 정책회의

연준이 가면 다른 중앙은행도 따라가는 경우가 많지만 미국 대선의 결과는 이러한 역학 관계를 왜곡할 수 있다.

트럼프의 승리와 무역 전쟁 가능성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 미국 인플레이션 상승과 달러 강세로 연준은 금리 인하 속도를 더 늦출 수 있고, 다른 중앙은행들은 추가 관세로 인한 성장을 타격과 씨름해야 할 수 있다.

영란은행은 오는 목요일에 금리를 25bp 인하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당 정부의 새 예산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효과로 인해 미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2025년에는 금리 인하 폭이 줄어들 수 있다.

호주에서는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되면서 내년까지 호주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 흔들리는 신흥 강국들

멕시코는 중국과 함께 미국과 신흥시장 관계의 풍향계 역할을 하는 국가로, 미국 대선에 대한 우려로 폐쇄화가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

신흥국 자금 유출은 달러 강세, 높은 미국 수익률, 전반적인 탈위험 성향에 힘입어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신흥국 중앙은행에 대한 압박을 가중시킬 것이다.

브라질 중앙은행은 이미 금리 인상 주기로 돌아섰다. 정책 입안자들은 9월에 금리를 10.75%로 25bp 인상한 데 이어 오는 수요일 금리를 50bp 인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코노미스트들은 올해 인플레이션이 공식 목표 범위의 상단인 4.5%를 약간 상회할 것으로 보고 있다.

1년 넘게 금리를 동결한 폴란드 중앙은행은 오는 수요일에 금리 인하 결정을 발표하고, 체코는 목요일에 또 한 번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 美주식시장/주간전망

• 두 개의 대형 이벤트로 시장에 중요한 한 주

뉴욕, 11월4일 (로이터) -

이번 주에는 미국인들이 차기 대통령에 투표하고 연방준비제도(연준)는 통화정책 회의에서 금리 경로에 대한 더 많은 통찰력을 제시하는 등 시장을 움직일 두 가지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다.

11월5일 대선 관련 추측은 금융시장 구석구석 변동성을 촉발해왔다.

이러한 거래에는 경제지표 호조와 맞물려 미국 달러의 상승과 국채 매도 및 트럼프의 가상화폐 산업규제 완화 기대로 인한 비트코인 급등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여론조사 결과는 여전히 교착 상태이고, 트럼프에 대한 베팅이 좁혀지고 있다. 일부 투자자들은 이번 주 투표 결과에 상관없이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린우드 캐피털의 최고투자책임자인 월터 토드는 "두 시나리오 모두 단기적인 리스크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토드는 공화당의 승리는 트럼프 거래에서 차익 실현을 촉발하고, 한편 해리스가 승리하면 더 심각한 언와인딩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화요일 투표로 의회도 결정될 것이며, 미국 경제에 대해 극명하게 다른 길을 제시한 두 후보를 감안할 때 여러 정치적인 결과가 장기적으로 자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를 두고 투자자들은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트럼프가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는 기대는 은행에 유리하고, 관세가 높아지면 내수 중심의 소형주 기업에 유리한 반면 전반적인 시장 변동성은 커질 가능성이 높다.

애널리스트들은 해리스가 청정 에너지를 더 지지할 것이라는 기대로 그녀가 승리할 경우 태양광 및 기

타 재생 에너지 주식이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은 또한 박빙의 결과로 승부가 바로 드러나지 않거나 한 정당이 이의를 제기하는 선거 결과로 인한 변동성을 경계하고 있다.

2020년 트럼프는 여러 주의 선거 사기라고 거짓 주장하며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패배한 결과를 뒤집으려고 했다.

다코타 웰스의 수석 포트폴리오 매니저인 로버트 파블릭"트럼프 치하에서도 시장은 잘 돌아갔다. 해리스 밑에서도 잘할 수 있다"라면서 "우리는 단지 명확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연준 전망

빅테크 기업들의 엇갈린 실적 속에서도 S&P500지수가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목요일에 있을 연준의 통화정책 결정은 올해 약 20% 상승에 지수에 대한 또 다른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금리선물 거래에 따르면 연준은 지난 9월 4년 만에 금리를 인하한 이후 이번 회의에서도 25bp 인하할 것으로 예상된다.

많은 투자자들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가이드언스에 초점을 맞추며, 연준이 향후 회의에서 경제지표 호조에 따라 금리 인하 사이클을 일시 중단할지 여부를 고려할 것이다.

경제지표에 관한 전망 대비 실적을 측정하는 씨티그룹의 경제 서프라이즈 지수.CESIUSD는 지난 4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연준 회의 전 마지막 주요 데이터인 월간 고용 보고서에서는 10월 일자리 성장이 거의 정체된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추세와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보잉사 파업과 허리케인이 고용 설문조사 응답률에 영향을 미친 탓에 이 지표에 대한 평가는 흐릿해졌다.

JP모간의 이코노미스트 마이클 페롤리는 메모를 통해 "이번 데이터는... 금리 인하 논리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준은 "목요일까지 선거 결과가 결정되더라도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많아 포워드 가이드언스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박예나 기자)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금주 국내 경제 주요 이벤트

11월4일 (월)

- ⊙ 기획재정부: 미래융복합 경제재정교육 출범(11:30)_2차관 참석
- ⊙ 기획재정부: 한국 녹색혁신의 날(KGRID) 행사 개최(15:00)
- ⊙ 기획재정부: 미주개발은행(IDB)과 연례협의 개최(17:30)
- ⊙ 기획재정부: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10차 회의 개최
- ⊙ 한국은행: BoK 이슈노트: 기후변화 리스크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기후대응 시나리오별 분석 (12:00)

11월5일 (화)

- ⊙ 통계청: 2024년 10월 소비자물가동향(08:00)
- ⊙ 기획재정부: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배포시)_1차관 주재
- ⊙ 기획재정부: 2024년 10월 소비자물가동향
- ⊙ 기획재정부: 아시아개발은행(ADB)과 한국과의 협력 강화 방안 논의(17:00)
- ⊙ 한국은행: 2024년 10월말 외환보유액(06:00)
- ⊙ 한국은행: 「한국은행 - 한국금융학회 공동 정책 심포지엄」 개최(14:00)

11월6일 (수)

- ⊙ 기획재정부: 제7회 디지털 이코노미 포럼 개최(11:00)
- ⊙ 기획재정부: 민간우주산업 활성화를 위한 현장애로 청취(16:00)
- ⊙ 통계청: 2024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비임금근로 및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08:30)
- ⊙ KDI 경제동향(12:00)
- ⊙ 한국은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 간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및 예금 토큰 기반 국민 체감형 디지털 금융서비스 실증」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11:00)

11월7일 (목)

- ⊙ 통계청: 2024 가구주택기초조사 실시(09:30)
- ⊙ 통계청: 2023년 다문화인구동태 통계(12:00)
- ⊙ KDI: 현안분석_중장기 민간소비 증가세 둔화의 요인과 시사점(12:00)
- ⊙ 한국은행: 2024년 9월 국제수지(잠정)(08:00)
- ⊙ 기획재정부: 제7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16:00)
- ⊙ 한국은행: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BIS 총재회의」 참석(12:00)
- ⊙ 한국은행: 2024년 10월 이후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12:00)

11월8일 (금)

- ⊙ 통계청: 2024년 3/4분기 제조업 국내공급동향(12:00)

(박예나 기자)

((younah.moon@thomsonreuters.com))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금주 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서울, 11월4일 (로이터) - 금주 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날짜	시간	국가	지표	기간	로이터 전망치	이전 수치
11월1-8일	23:00	미국	자동차판매	10월		2.980M
11월4일	18:00	유로존	HCOB 제조업 PMI 확정치	10월	45.9	45.9
11월4일	18:30	유로존	센틱스지수	11월	-12.5	-13.8
11월5일	00:00	미국	고용추이	10월		108.48
11월5일	00:00	미국	내구재주문 수정치 MM	9월		-0.8%
11월5일	10:45	중국	차이신 서비스업 PMI	10월		50.3
11월5일	23:45	미국	S&P글로벌 서비스업 PMI 확정치	10월		55.3
11월6일	00:00	미국	ISM 서비스업 PMI	10월	53.8	54.9
11월6일	08:00	일본	로이터 단칸 제조업지수	11월		7
11월6일	18:00	유로존	HCOB 서비스업 PMI 확정치	10월	51.2	51.2
11월6일	19:00	유로존	PPI MM	9월	-0.7%	0.6%
11월6일	21:00	미국	모기지마켓지수	11월1일 주간		214.5
11월7일	17:00	중국	외환보유고	10월		3.316T
11월7일	19:00	유로존	소매판매 MM	9월	0.5%	0.2%
11월7일	22:30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10월 28일 주간	223k	216k
11월7일		중국	수출 YY	10월		2.4%
11월7일		중국	수입 YY	10월		0.3%
11월8일	05:00	미국	소비자신용	9월	14.25B	8.93B
11월8일	08:30	일본	가계지출 YY	9월	-2.1%	-1.9%
11월8일	08:50	일본	외환보유고	10월		1,254.9B
11월8-15일		중국	총통화(M2) 공급 YY	10월		6.8%
11월8-15일		중국	신규 위안화 대출	10월		1,590.0B
11월9일	00:00	미국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예비치	11월	71.0	70.5

11월9일	10:30	중국	PPI YY	10월		-2.8%
11월9일	10:30	중국	CPI YY	10월		0.4%

• 금주 해외 경제 주요 이벤트 (괄호 안은 한국시간)

11월4일 (월)

- ⊙ 호주 중앙은행 통화정책회의 시작 (5일까지)
- ⊙ 휴장국가: 일본

11월5일 (화)

- ⊙ 호주 중앙은행 금리 결정 발표 (오후 12시30분)
- ⊙ 미국 대통령 선거, 상하원 선거

11월6일 (수)

- ⊙ 일본은행, 9월19-20일 통화정책회의 의사록 공개 (오전 8시50분)
- ⊙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 은행 감독 관련 행사에서 연설 (오후 11시)
- ⊙ 연방준비제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통화정책회의 시작 (7일까지)

11월7일 (목)

- ⊙ 영란은행 금리 결정 발표 및 의사록 공개 (오후 8시)
- ⊙ 연방준비제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금리 결정 발표 (8일 오전 4시), 제롬 파월 의장 기자회견 (8일 오전 4시30분)

(신안나 기자)

((anna.sheen@thomsonreuters.com))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지난주 로이터 한글 뉴스 서비스 주요 기사**

• **(단독)-中, 다음 주 10조위안 이상 새 재정 패키지 승인 검토**

10월29일 (로이터) - 중국은 취약한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향후 몇 년 동안 10조 위안(1조 4천억 달러) 이상의 추가 채권 발행을 다음 주 승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재정 패키지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이 문제를 잘 아는 두 명의 소식통이 말했다.

중국 최고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11월4일부터 8일까지 열리는 회의 마지막 날 특별 국채를 통해 일부 조달할 6조 위안을 포함한 새로운 재정 패키지를 승인할 예정이라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소식통은 6조 위안 규모의 부채는 2024년을 포함해 3년에 걸쳐 조달될 것이며, 조달 자금은 주로 지방 정부가 장부 외 부채 리스크를 해결하는데 사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별 국채와 지방 정부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할 계획인 총액은 장기적인 부동산 부문 위기와 지방 정부의 부채 급증으로 큰 타격을 입은 중국 GDP의 8% 이상에 해당한다.

로이터는 중국 당국이 최근 몇 주 동안 금융 애널리스트들이 중국이 고려할 것으로 예상했던 금액인 10조 위안 규모의 경기 부양책 승인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확인했다.

이 지출 계획은 일부 투자자들이 요구해온 2008년과 같은 바주카포는 아니지만 중국이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더 높은 수준의 부양책으로 전환했음을 시사한다.

이 사안에 대해 알고 있는 소식통은 기밀 유지의 제약으로 인해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했다.

국무원 정보판공실과 전인대 상무위원회 보도부는 로이터의 논평 요청에 즉시 응답하지 않았다.

소식통들은 이 계획이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며 변경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신안나 기자)

((anna.sheen@thomsonreuters.com))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단독)-中 시진핑, 바이든에게 대만에 대한 언어 바꾸라고 압력 가해**

워싱턴/베이징/타이베이, 10월29일 (로이터)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미국이 대만 독립에 대한 입장을 논의할 때 사용하는 언어를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해당 대화에 정통한 두 명의 미국 관리들이 밝혔다.

지난해 11월 샌프란시스코 부근에서 열린 양국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과 그의 보좌관들은 바이든과 그의 팀에게 미국 공식 성명에서 표현을 수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중국은 미국이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현재 버전이 아닌 "우리는 대만 독립에 반대한다"고 말하기를 원했다고 익명을 요구한 이 관리들은 말했다.

두 명의 미국 관리와 해당 교류에 정통한 다른 사람에 따르면 시 주석의 보좌관들은 그 후 몇 달 동안 반복적으로 후속 조치를 취하고 그러한 요청을 해왔다.

하지만 미국은 변경을 거부했다.

백악관은 논평 요청에 대해 미국이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반복하는 성명으로 응답했다. 성명은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는 우리의 오랜 '하나의 중국' 정책에 대해 일관성을 유지해 왔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이 질문은 미국 정부에 물어봐야 한다. 대만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분명하고 일관적이다"라고 밝혔다.

대만 외교부는 논평을 거부했다.

(김지연 기자)

((jiyoun.kim@thomsonreuters.com :))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달러/원 월간 전망 ①)-양방향 변동성 리스크..달러 이외 원화 약세 재료도 주목

서울, 11월1일 (로이터) 박예나 기자 - 11월 달러/원 환율은 양방향 변동성 리스크가 대거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다.

로이터통신이 외환시장 전문가 11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11월 환율 예상 범위(평균)는 1344.7-1404.5원으로 제시됐다.

미국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10월 달러지수는 3%대 상승해 2년 만의 최대 월간 상승률을 기록했다. 달러/원 환율은 1400원 부근까지 가파르게 올랐다. 미국 대선 결과를 기다리며 달러/원 환율은 1400원 앞에서 후퇴했지만 시장전문가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할 경우 환율 고점이 1400원대로 오를 가능성을 열어뒀다.

반면, 해리스 부통령 당선시 환율은 반락할 수 있다고 봤다. 일각에서는 미국 대선 불확실성을 반영해온 시장이 어떤 결과에도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그간의 강달러 흐름을 일정 부분 되돌릴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하지만, 미국 대통령과 상하 양원을 공화당이 싹쓸이할 경우 달러와 금리의 상승 변동성이 대거 확대될 리스크는 열어뒀다.

한편, 한국 수출 정점론 속 펀더멘털 우려와 외국인 주식 매도 지속에 따른 수급 경계 심리는 유지됐다. 지난 9월 국내 유가증권시장에서 약 8조원 매물을 쏟아낸 외국인들은 10월에도 5조원여치를 팔아치웠다.

아울러 북한의 러시아 전쟁 파병과 추가 도발 위험 또한 원화 약세를 거들 요인으로 지목됐다.

• (달러/원 월간 전망 ②)-양방향 변동성 리스크..달러 이외 원화 약세 재료도 주목

서울, 11월1일 (로이터) 박예나 기자 - 11월 달러/원 환율은 양방향 변동성 리스크가 대거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다.

로이터통신이 외환시장 전문가 11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11월 환율 예상 범위(평균)는 1344.7-1404.5원으로 제시됐다.

▲ 조가영 과장 (신한은행)

"11월 초 미국 대선이 가장 큰 이벤트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트럼프 당선시 달러/원은 1400원 이상 갈 가능성도 있어. 해리스 당선 시에도 단기적으로는 환율이 빠질 수는 있지만 불확실성 고조로 달러/원 상승 재료로 작용할 수 있음. 미국 대선 직후 11월 FOMC와 중국 전인대 상무위에서 급격한 달러 강세에 대한 방어와 자국 경기부양을 위한 조치를 하게 될 경우 달러/원은 하락할 수 있음. 결론은 환율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

- 예상 거래범위 1360-1410원

▲ 이창섭 과장 (우리은행)

"미 대선을 앞두고 불확실성이 커져 10월 환율이 많이 올랐지만, 선거 이후 안정될 전망. 다만, 트럼프 당선시 환율이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으나 현재 어느정도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돼 환율 안정화 될 것. 다만, 계속되는 세계 각국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외국인 주식 매도세, 환율 급상승으로 처리하지 못한 결제 수요는 환율 하락시 하단 제한할 전망."

- 예상 거래범위 1360-1410원

▲ 고규연 팀장(하나은행)

"미국의 공격적 금리인하 가능성 희석과 트럼프 트레이드로 10월 환율이 급등한 가운데 환율 상승 주범이었던 미 대선이 환율 향방의 키가 될 것. 트럼프 당선시 관세 등 무역 전쟁 우려 속 달러 강세가 나타날 가능성 있어 중기적으로 환율은 하락하기 힘들어 보이나, 초단기로는 80원 가까운 급등세로 트럼프 당선 가능성을 선반영된 점을 감안하면 10월의 급등세는 보이지 않을 것. 달러/원 1400원대 경계감 속 연말로 갈수록 원화 수요가 늘어나는 점, 역외의 북클로징이 다가오는 점은 공격적인 포지셔닝을 자제시키며 환율 상방을 제한할 전망. 다만 계절적 요인으로 에너지 업체 매수 가능성, 잠잠하다 나오는 지정학적 위기로 환율의 하락 반전도 쉽지 않을 전망."

- 예상 거래범위 1360-1400원

▲ 이철우 과장(IBK기업은행)

"11월 빅 이벤트가 많은 상황에서 변동성 확대될 것으로 전망. 트럼프 당선시 경우 이미 트럼프 트레이드가 선반영돼 시장 영향 제한적일 것. 반대로 해리스 당선이 서프라이즈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겠으나 이번 대선이 워낙 박빙이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이 또한 하방압력을 크게 주지는 못할 것이고, 트럼프의 선거 결과 불복시 환율 변동성 가능성도 있어."

- 예상 거래범위 1350-1400원

▲ 홍원재 팀장(iM뱅크)

"환율 상승 기조 꺾일 유인 적어. 해리스 후보 당선으로 환율이 잠시 빠지더라도 매크로 기준으로 변한 게 없는 상황에서 환율 재반등할 수도. 과거와 달리 미국 예외주의, 보호무역주의를 감안하면 대미 무역 흑자국에 대한 낙수효과는 예전만큼 없을 것으로 봐. 추세를 꺾을 만한 재료가 없다고 판단. 펀더멘털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 일시적인 뉴스 이외 환율 기본 추세는 유지될 것."

- 예상 거래범위 1350-1410원

▲ 김준연 대리(KDB산업은행)

"11월 초 미국 대선 및 정치 리스크에 따른 글로벌 달러 강세 지속 전망.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확률 높아진데 따른 시장금리 상승, 달러 강세는 달러/원 하단 지지. 미국 선거 결과 따라 달러 추가 강세 여부 결정될 것. 다만, 달러 상승이 11월 말까지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는 연준 점도표 기준 미국 국채 10년 적정 금리가 3.7~9%로 추정되는데 이에 비해 40~50bp 상승함에 따라 대선 불확실성과 재정 리스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달러/원 또한 이에 따른 영향 받은 것으로 판단. 9월에 비해 10월 고용지표 악화 예상되고, 이에 11월 FOMC에서 25bp 추가 금리 인하가 예상되나, 점도표 조정을 통해 내년 상반기말, 연말 예상 금리가 현재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 달러/원 하락폭은 제한적일 전망."

- 예상 거래범위 1340-1400원

▲ 전병철 과장(NH농협은행)

"환율 변동성은 확대될 수 있겠지만 레인지 안 등락할 것. 국내투자자의 해외투자 환전수요가 9월, 10월 다소 꺾인 것으로 보여. 트럼프 트레이드 반영된 가운데 1400원대는 당국 개입 경계감도 형성돼 이 레벨 뚫기는 쉽지 않을 듯. 다만, 북한 러시아 파병 등 지정학적 리스크와 삼성전자 등 국내 증시에 대한 외인 매도세 이어질 가능성 등에 달러/원 레인지 하단이 지지될 것으로 보여."

- 예상 거래범위 1350-1400원

▲ 박수연 연구원(메리츠증권)

"미국 11월 대선에서 결정될 차기 대통령이 내년까지 외환시장 좌우할 것. 다만 11월 한 달로 한정하면 이미 금융시장이 트럼프 후보자 당선을 가정했기 때문에 어떤 후보자가 당선되더라도 강달러 되돌림 나타날 것으로 예상. 후보자에 따라 되돌림 폭만 다를 것. 달러인덱스 하락폭은 트럼프보다 해리스가 클 것. 한편, 11월 FOMC 25bp 인하는 기정사실이기에 매크로 상황의 외환시장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

- 예상 거래범위 1350-1400원

▲ 이민혁 연구원(KB국민은행)

"미국 대선과 FOMC회의 등 '빅 이벤트' 경계심리로 환율의 상하방 변동성 클 것. 트럼프 당선 시 재정 적자 확대 및 글로벌 관세 우려에 일시적으로 달러 강세 및 달러/원 추가 상승에 1400원 상회도 가능. 반면, 해리스 당선일 경우 트럼프 트레이드 해소로 달러 약세 전환, 이에 따른 환율 급락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 다만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대선 종료 이후 불확실성 해소와 연준의 11월 추가 금리인하가 약 달러로 작용할 전망. 한편, 원화는 중동 및 북한 등 지정학적 리스크와 국내 경기둔화와 수출 성장 피크 우려 등에 강세 재료 충분치 않아. 달러/원은 월초 미국 대선 종료 이후 약달러 전환에 동조하며 하락

예상되지만, 동시에 원화 약세 기조도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하락 속도는 더딜 것으로 전망.“

- 예상 거래범위 1320-1410원

▲ 문홍철 파트장(DB금융투자)

"미국 대선을 전후로 트럼프 트레이드는 힘을 잃을 것이며 대선 이후 불확실성 해소로 금리와 환율 모두 아래쪽으로 방향 잡을 것. 펀더멘털에 다시 집중하는 시기가 오면서 미국 고용 둔화와 유가, 휘발유 가격 하락세를 반영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 고용지표는 허리케인과 보잉 파업 영향으로 상당히 부진할 것이며 에너지 가격하락에 따른 물가 안정은 시장금리와 달러 하락을 합리화시킬 것. 다만 대선에서 상하원까지 공화당이 가져갈 경우 단기적으로 환율 상승세는 클 리스크 존재.“

- 예상 거래범위 1342-1410원

▲ 권아민 연구원(NH투자증권)

"11월은 단연 대선이 큰 변수다. 직전 10차례 대선이 치러진 해의 달러지수 평균 궤적을 보면 11월 초 대선 직후 소폭 하락하는 계절성이 관찰됐다. 당장은 트럼프 당선 가능성을 강하게 반영하며 고금리/강달러 국면이 전개되고 있는데, 대선 직후 이벤트 소멸, 불확실성 해소에 분위기가 빠르게 되돌려질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 트럼프 트레이드 영향에 원화는 최근 멕시코 폐소화 다음으로 약세폭이 큰 통화다. 최근 미국과 non-US 선진국간 금리 차, 한국 경상수지 비율 개선(2분기 기준 GDP 대비 4.3%) 등과 비교해도 원화 약세폭이 과도했다고 판단. 지난 4월 연고점(1,400원) 부근 당국 달러 매도 규모는 58억달러로 1년래 최대 규모를 기록. 당국의 환율 방어 의지가 뚜렷했다고 판단하며, 이번에도 1,400원은 유의미한 단기 상단이 될 전망. 11월만 보면, 환율은 추가 상승보다는 강보합 흐름 전개될 가능성 커.

- 예상 거래범위 1310-1400원

((Yena.Park@thomsonreuters.com ;

Reuters Messaging: Yena.Park@thomsonreuters.com @reuters.net))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